민주시민교육 정보지 〈시민교육〉 그 첫발을 내딛다

글 · **이선태** homile@kdemo.or.kr

모든 책은 아름답다. 그림 한 점 없고 사진 한 장 없이, 시커먼 활자만 빼곡한 책도 아름답기는 매한가지다. 책에는 그 책을 만든 사람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소설이나 시집과 같은 문학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이 몸으로 겪은 눈물과 고통이 배어져 있고, 두꺼운 학술 서적에는 인류의 지성사를 종으로 횡으로 넘나드는 학자의 불면(不眠)이 녹아 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아름답다.

책들이 제각기 갖는 아름다움의 영역도 다양하다. 단행본이 담백한 미를 자랑한다면, 잡지는 무지개 빛의 아름다움이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색깔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가까이서 보면 어지럽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무지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다. 무지개의 색깔이 일곱 가지라는 얘기는 인간의 인지가 갖는 언어적 주관성에 다름 아니다. 색깔의 경계마저 흐릿하지만 분명 일곱 가지의 색깔을 포함하고 있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아름답다.

무지개 빛 잡지, 〈시민교육〉

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에서는 이달 〈시민교육〉이라는 잡지를 창간 발행한다. 민주시민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보지다. 교육학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는 학자들도 많다. 인권, 평화, 환경, 주민자치 등 시민단체에서도 시민교육에 대한 경험과 고민은 적지 않은 수준에 올라 있다. 물론 아직은 충분치 못하지만 정부쪽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평생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기관까지를 포함한다면 범위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정보지라는 것은 보통 특정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다.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 교육사업팀 내부 논의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후 발간 준비를 위한 간담회나 몇 차례의 편집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는 잡지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 단계 시민교육의 과제와 우리 사업회의 전반적 위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시민과의 교감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규정되었다. 단 이후 시민교육의 주체 역량들이 강화되고 일정한 괘도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전문 잡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는 잡지로서의 〈시민교육〉

정보화 시대라는 조건은 새로운 매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미 많은 것을 '스스로' 가능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잉크 냄새도 이미 웹2.0세대에게는 낯선 것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잡지 형태도 인터넷 시대에는 새로운 차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웹진'의 형태는 상당한 수준에서 일상화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민교육〉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출현할 것인가도 당연히 쟁점이 되었다. 웹진의 형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이쪽이 시대 흐름에 걸 맞는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화 기기의 현 수준이 일상적으로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인터넷 같은 매체가 갖는 세대적 한계 내지는 접근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다시금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후 웹진 형태로 동일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히 전개한다는 원칙도 확립되었다.

인쇄 매체의 형태를 지니고는 있으나 분명히 그냥 책을 하나 더 얹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간담회와 편집회의 참가자들의 일관된 결론이었다. 그래서 나온 과제는 디자인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다. 분명 책이 나와야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읽는 잡지가 아니라 편하게 '볼 수 있는 잡지'를 〈시민교육〉은 지향하고 있다. 보는 잡지로서의 〈시민교육〉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출판사를 선정하면서도 재정적 범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 편집위원과 실무진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시민교육의 새로운 거버넌스

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있다. 서로 경험의 차이도 있고 비전의 차이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주의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민교육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업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이다. 사업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펼쳐지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시민교육〉도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에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자발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기초하면서도 국가 부문에서의 제도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상호 경험적 차이와 방향의 차이가 있더라도 항상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지개에 여러 색깔이 공존하듯이 〈시민교육〉에는 다양한 생각과 전망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밝은 내일을 향해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펼치는 다이나믹, 역동성을 〈시민교육〉에 담아내고자 한다.

지난 2008년 우리 사업회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여러 국제행사를 경험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시민교육 관계자들과의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사업회에서 번역 출판한 시민교육 관련 서적들도 마찬가지의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시민교육의 발전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고, 제도화라는 안정적 단계를 우리 역시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민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경험과 노력, 정부 각 기관들의 고민, 학계에서의 새로운 어젠다들이 공유되고 소통된다면,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전환적 계기가 작게나마 마련될 수 있다면 이 무지개 잡지 〈시민교육〉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창간준비호가 준비한 선물

〈시민교육〉 창간준비호는 매우 조심스럽다.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걷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참신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늘 관계자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창간준비호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선물이기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창간준비호 기획의 기본바탕을 이루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가지 않으려고 했다. 현 단계 민주시민교육의 현황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앞으로 〈시민교육〉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에게 묻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창간준비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100쪽 분량의 잡지에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잡지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시민교육〉 창간준비호가 준비하는 선물을 살짝 공개한다. 곧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보물 보따리의 매듭만 살짝 풀어 본다. 가장 발품을 많이 판 것은 릴레이 인터뷰다. 무려 열 명이 넘는 시민교육 관계자들이 여기에 등장한다. 환경, 빈민, 인권, 양성평등, 리더십, 다문화, 갈등해결 등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 물론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된다. 최근 활동의 양상과 전개과정, 쟁점, 과제, 고민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아쉽지만 '오프더 레코드'를 싣지 못한 것은 공개 매체의 영원한 한계다.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허병섭 목사의 발자취를 탐구한다. 허 목사의 쾌유를 빌며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본다. 시민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도 빼놓을 수 없다. 순천, 부산 반송동, 사업회의 NGO 활동가 교육 등이 다뤄진다. 해외 시민현장으로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시민교육 세계의회 소식이 전달될 것이고, 주요한 해외 시민교육 인사들과의 인터뷰도 실린다. 또한 시민교육 종사자들에게 쉽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도 기획했다. 독서토론 프로그램, 시민단체 프로그램, 학교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공된다. 현실을 조망하는 논문으로는 정선애, 유정길, 조상식 선생들의 알찬 글이 준비되고 있다. 이밖에 영화, 음악 등 일상적 주변 세계를 시민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기사들도 다뤄진다.

우리 사업회에는 이미 〈기억과 전망〉이라는 튼튼한 반년간 학술지가 있고 〈희망세상〉과 같은 친근한 월간 소식지가 있다. 새로운 정보지 〈시민교육〉은 두 매체의 중간에 위치할 듯 싶다. 〈시민교육〉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해 우리 사업회의 매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시민교육〉이라는 제호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 **이선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 전문위원

유럽시민발안회의 참관기

글 · **박문진** munjiny505@kdemo.or.kr

모차르트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필자는 지난달 6일(수)부터 12일(화)까지 이정옥 국제사업위원장과 함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여정은 〈유럽시민발안회의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Summit, ECIS〉 참관과 유럽 내 협력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함이었다. 그동안 사업회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 하여 유럽사회와의 교류협력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사회의 노력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유럽

이번 회의는 잘츠부르크 대학 내 있는 '유럽법률과정책을위한오스트리아연구소(Austrian Institute for European Law&Policy, AIELP)'와 지난해부터 사업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nitiative&Referendum Institute Europe, IRI-Europe)'

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ECIS회의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시민발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이에 대한 EU의 역할을 논의하여 결의문을 수립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C)와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 EP)를 통해 결과적으로 EU에 제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등지에서 학자는 물론 시민사회활동가나 정치인, 그리고 EU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5월 7일 유럽의회에서 보다 유럽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 수행을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유럽의회는 물론 EU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공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5월 8일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회의를 주최한 두 기관의 대표인 요하네스 피츨러(Johannes Pichler, AIELP)와 브르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IRI-Europe),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Marburg Univ.) 정치학과의 테오 쉴러(Theo Shciller) 교수, 그리고 사업회 이정옥 국제사업위원장이 함께 오스트리아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 의의미, 시민발안과 관련하여 현재 EU차원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정옥 위원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직접 ·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직접 · 참여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경험을 나누는 글로벌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바람을 전했다.

언론간담회가 끝나고 11시부터 IRI-Europe의 브루노 씨 사회로 진행된 첫째 날 회의는 다이아나 왈리스 유럽의회 부의장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영상 메시지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직접민주주의 전문가들과 실시간 화상통화 연결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점, 그리고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주최 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한 국가만의 이슈를 다루어도 바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 유럽에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에는 더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참가 대상이 각국 내에서 정부 또는 정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일정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매사가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회의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국제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관심은 많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일정이 여의치 않는 이들도 많은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IT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첫째 날은 본격적인 결의문 수립을 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직접 · 참여민주주의 관련 현황과 이것이 유럽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주최 측에서 마련한 초안으로 기본적인 초안 작성 배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새로운미국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의 조 매튜 선임 연구원과 칠레 산티아고 가톨릭대학의 데이비드 알트만 교수는 화상 연결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필자와 이번 출장을 함께한 이정옥 국제사업위원장(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은 준비해간 자료와 함께 한국, 아시아의 직접 · 참여민주주의 현황과 유럽의 경험이 아시아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기념사업회의 국제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을 하였다.

둘째 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결의문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 합의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에 들어갔다. 국가마다 직접 · 참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이 다르겠지만, 이미 EU 시스템이 많이 정착된 상태여서 인지 큰 의미의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 했다. 이는 아마도 EU 시스템 속에서 상호 인적교류와 정보교류가 활발하고, 이미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 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의문은 5월 7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한 권고안과 EU의 향후 역할 제시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럽시민발안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서명국가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 유럽의회에서 제시한 유럽시민발안의 진행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EU로부터 전 유럽을 대상으로 재원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럽시민발안사무소' 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주장이 되었다.

회의에 참관하며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이들의 참여였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업은 잘츠부르크의 유명한 음악대학 모짜르테움의 교수인 참가자도 있었다. 그만큼 시민발안제와 같은 이슈를 자신의 삶에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의원 등의 구분이 모호한 점도 인상 깊었다. 독일의 메어데모크라시에서 온 활동가도 정계 출마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 과거 학자로서 이정옥 국제사업위원장과 교류했던 이는 이미 유럽의회 의원이 되어 있었다. 정치학이나 유럽연합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다른 연륜과 경험이 쌓인 참가자들과 동등하게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였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 이것 역시 유럽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출장 기간 틈틈이 돌아본 잘츠부르크 시내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건축연도가 새겨져 있는 건물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1700년대이고 개중에는 1300년대 건축된 건물들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성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녁에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고 성당과 분수 역시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남대문마저 쓰러진 우리 사회를 돌아보았다.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간직하고 현재의 시각에서 그 '멋' 을 찾아내기 보다는 첨단의 기능이 갖춰진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대체해 가는 '얼리 어답터(early-adopter)' 인 우리 사회.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한국의 '멋' 을 더욱 뿌듯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글 **박문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팀

기억과 보존을 위한 발걸음
2008 민중가요 노래모음 〈노래는 멀리멀리〉 발간

글 · **서정민갑** bandobyul@hanmail.net

누군가에게 기억은 하나의 풍경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하나의 음성으로 남아있기도 하며, 하나의 냄새 혹은 촉각으로 남아있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말과 글로 기록한다. 개인적 기억을 보전하기 위해 들이는 수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지만 개인과 개인을 뛰어넘는 시대적, 역사적 사건의 경우는 국가권력,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 역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일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가 서양을 통해 이식된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법치, 인권, 평등 등의 다양한 가치로 채우며 현실 정치와 소통의 원리로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민주화의 과정은 멀고도 험난했으며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을 다 버리고 대신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을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고 두렵고 긴장된 길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다그치고 함께 하는 이들을 묶어 세우기 위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옛 역사서에 서도 우리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하니 싸움을 하면서도 어찌 노래를 멈출 수 있을까.

참 많은 노래가 불려졌다.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부르는 노래들과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부르고 있는 노래들 말고도 일터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돈을 내지 않고 부른 그 노래들은 함성이 되었고 파도가 되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시민들로 변화시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2007년부터 민중가요 기본 콘텐츠 수집사업을 벌인 것은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좋은 역사이건 나쁜 역사이건 모든 후대는 그 앞의 역사를 충실하게 보존하고 기록하며 평가할 의무가 있다. 하물며 세상을 바꾼 노래들은 더 일러 말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불리던 노래들과 노래들이 담긴 악보집, 테이프를 수집하고 디지타이징하며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구술을 채록하고 해설을 붙이는 작업은 연구와 평가에 앞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민중가요 악보집을 발행하는 일은 지난 시기의 노래들을 정리하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1977년부터 나온 민중가요 악보집을 최대한 수집한 뒤 수록된 곡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한 악보만을 골라 다시 악보를 그린 뒤, 편집하고 교정하고 인쇄해서 민중가요 악보집을 발행하는 일은 거의 수작업에 가까웠다. 아마도 그래서 한정된 부수만을 찍어야 했던 악보집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받고싶다 요청했던 것 아닐까. 뜨거운 노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정성에 대한 감사였으리라 생각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올해,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민중가요 기본 콘텐츠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째 민중가요 악보집을 내놓는다. 1990년부터 1992년에 나온 노래책들에 수록된 악보 600여개가 수록될 예정인데 가장 변혁적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답게 다양한 주제로 운동의 원칙적 지향을 담은 노래들이 각별히 많이 눈에 띈다. 두 권으로 나눠서 제작된 이번 악보집은 6월 이후 소량 선착순 배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웹을 통한 공개 역시 준비하고 있다. 모쪼록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은 이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역사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이들에게 반갑고 즐거운 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서정민갑** | 대중음악에 관한 비평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주제를 담은 대중음악 공연 기획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문화활동가이다.